

예술의 향연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전주 문화공간이름서 28일 다채로운 무대 선사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전주시의 문화공간 이름에서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공연이 열린다. 이번 공연은 (재)전북도문화관광재단의 2023년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로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으로는 운화준 마중, Waldesgesprach Robert Alexander Schumann Opera-Don Giovanni Madamina il catalogo e questo-Wolfgang Amadeus Mozart를 바리톤 박세훈의 노래로 시작되어 꽃별의 그리움은 별이 되다, 김광진의 편지, 그리고 이번 공연의 연주자인 기타리스트 이상욱이 작곡한 구름을 대금 이동준과 기타리스트 이상욱이 함께 피연 음악으로 멋지게 표현될 것이며, Franz Peter Schubert의 Avenaria, 이상욱의 슬픈인연, 이은미의 녹턴을 소프라노 김경은과 이상욱이 함께 연주하고, Mike Cornick의 Latin Suite for Piano Duet No.2(1. Bossa Nova, 2. Habanera, 3. Samba) Latin Suite for Piano Duet No.1(1. Beguine, 2. Slow Tango, 3. Conga)이 두 작품을 피아니스트 이은정과 이영신이 연주하는 1Piano 4Hands의 멋진 울림으로 막을 내린다. 이처럼 전체적인 무대 구성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이번 공연은 화가와 음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포스터

악가들의 공통점을 찾아가며 화가의 화풍과 음악가들의 작품을 통해 '미술은, 클래식은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것이구나!'라는 새로운 깨달

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클래식 음악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될 것이며,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일반인부터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다양한 이들에게 풍성한 문화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가을의 서리찬 바람과 더불어 문화의 강령,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으로 특별한 예술 향연의 순간을 함께해보자.

이번 공연을 주최하는 문화공간이름서의 대표인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문화의 창, 문화공간이름에서 열리는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은 예술의 두 가지 얼굴, 화가의 정감 있는 터치와 음악가의 섬세한 손길이 만나 그린 특별한 순간이다"며 "우리는 예술의 미학을 통해 감성의 고조에 이르는 여정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연을 위해 엄선한 명화와 클래식 음악은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여운을 전해드릴 것"이라며, "이 순간, 문화의 장을 열어두고 함께 걷는 여러분들께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서 미술과 음악이라는 두 가지 예술 분야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감성을 사로잡을 것이며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예약제이므로 네이버 이벤트를 통해 좌석 선택이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지속가능한 전북 관광이야기

한양대 이훈 교수, 전북지식살롱 16회차 강연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22일 오후 5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전북지식살롱' 16회차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한양대학교 이훈 교수(국제관광대학원장)가 '지속가능한 관광'을 주제로 '오버 투어리즘' 문제에 대해 다룬다. 이훈 교수는 2021년 3월 한국관광학회 제26대 회장(2년)으로 취임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학술 연구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학계를 비롯한 산업계 및 공공기관 등과 국내 관광 발전을 위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 중이다.

전북 관광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석은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https://naver.me/xao0x0d0>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2023년 '전북지식살롱'은 이번 16회차를 마지막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시즌2로 돌아올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063-230-4216)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탈춤 보존·전승 다변화 모색

국립무형유산원, 24일 학술대회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탈춤의 보존·전승 현황을 파악하

고, 창조적 계승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학술대회는 2부로 구성, 총 5명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탈춤 관련 연구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탈춤 전승 현장에서 탈춤의 미래를 고민해 온 전문 연희자들이 전승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별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063-280-1512, 1518)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탈춤 전승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향유 확산 방법을 논의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인류공동유산으로서 탈춤 전승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무형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전승 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연구와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대학 졸업발표회 개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16일 한벽문화관에서 2023 팔복예술대학 졸업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이날 졸업발표회는 1~4기까지 발차취와 4기 정규과정 5강좌의 성과를 전시와 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수강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도 함께 참여하는 토크쇼도 행사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연극 수업 '이제 나도 배우다' 수강생이 준비한 '30일간의 아우회' 낭독 공연을 선보이고, 올해 새로 개설한 합창 수업은 '이팝심어즈'라는 합창단으로 결성돼 1년간 연마한 실력을 뽐낸다.

이 외에도 팔복예술대학 4기 교육 과정 성과물 전시는 한벽문화관 공연장 로비에서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들어 팔복예술대학의 기능과 성과를 짚어봐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졸업발표회를 통해 수강생들과 배움의 가치와 즐거움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전주시민을 위해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예진흥팀(063-211-92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서울시니어스타워 고창웰파크시티, 업무협약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9일 서울시니어스타워 (주)고창웰파크시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9일 서울시니어스타워 (주)고창웰파크시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니어스타워(주) 고창웰파크시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재단 이경운 대표이사와 고창성정팔복병원 원대연 이사장 외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지역특성화 매칭펀드지원 사업 및 메세나사업 등 문화향유사업 공동협력, △웰니스·치유관광·웰케이션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 협력, △사회공헌사업 발굴 및 공동추진, △통합문화이용권·예술인 패스카드 소지자 고창웰파크시티 시설 이용 할인, △양 기관 추진 사업 및 대외적인 홍보 등이 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노조, 봉사활동 펼쳐

전북문화관광재단 노동조합(위원장 최남신, 이하 노동조합)은 15일 원주 빈첸시오의 집에서 재단 관리자와 함께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급격히 추워진 날씨 속에서 농작물 수확과 시설보수 등 실질적 일손이 필요한 기관에 힘을 보태고자 추진됐다.

빈첸시오의 집은 완주군 비봉면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로 텃밭을 직접 가꾸 식자재를 충당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과 재단 14명은 김장철을 맞아 무 수확과 김장재료를 다듬었다.

최남신 위원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조원과 재단 관리자 모두 한 마음으로 참여



해 더욱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노동조합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조합(063-230-7490)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텃밭과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